

##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이선미

### 국문초록

박완서 소설은 삶의 '이면'으로서 '내면'적 자아를 부각시키려는 성격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과 분단, 전체주의적인 근대화의 경험을 통해 은폐되고 '억압'된 역사적 사실들을 복원하려는 작가의 방법론에서 연유한 것이다. '기억'과 '복원'의 방법론은 바로 역사적 과정에서 억압된 사실들을 '내면'적 자아의 형상으로 복원하려는 작가 나름의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서술방식으로서 '이면지향적 사유'와 연관된다.

특히 박완서 소설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기억'하고 '복원'하려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실'은 단순한 증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은폐하고 억압하도록 하는 현실의 이해관계까지도 비판하는 현실비판의식과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비판하려는 자기성찰이 이 기억의 방법론을 역사적으로 의미있게 한다.

『나목』의 이경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는 전쟁이라는 극적 상황을 통해 허구적 '가족 관념'에 의해 부정된 자기 삶의 진상(真相)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 '관념'은 자기 삶의 근거이기도 하여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폐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을 겪는다. 이 내면갈등을 내색하지 못하고 내면에만 담아두어야 하는 인물의 이중적 상황은 인물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이중적 인물의 성격화방



식은 서술의 <역설성>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내면 갈등은 자기를 소외된 자, 즉 타자로 인식하는 자기인식으로서 고아의식이 된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규범의식에 의해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고아의식은 60·70년대의 전체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었던 획일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는 자아의 서사라 할 수 있다.

## 1. 서론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치밀한 내면묘사를 통해 성격화된다. 체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일상사와 풍속을 그려내면서도 내면묘사를 통해 개성이 강한 인물을 보여준다. 그래서 박완서는 풍속작가, 세태작가라 불리기도 하며 치밀한 심리묘사의 작가라 평가되기도 한다.<sup>1)</sup> 30년의 창작 기간 동안 발표된 방대한 양의 작품들은 동시대의 일상사를 속속들이 담아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인물들의 진지한 내면탐색으로 귀결되어 당대인들의 내면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sup>2)</sup> 세태작가로 알려져 있는 박완서의 소설은 치열한 자기탐색을 보여주는 인물의 개성적 면모로 인하여 일관된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작품의 주제가 최종적으로 집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심리묘사로 드러나는 작중 인물의 '내면' 이야말로 다양한 삶

1)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 동향은 1991년 봄 『작가세계』 특집에 실린 조혜정의 글과 2000년 박완서 문학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박완서 문학 길찾기』(이경호·권명아 엮음, 세계사)에 잘 조망되어 있다.

2) 서영채는 박완서 소설이 “단순한 일상의 풍속도 넓고 깊은 마음의 풍속도로, 혹은 역사적 의미를 압축하고 있는 내포가 풍부한 그림으로 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일상적 소재들과 삶의 풍속이 인물의 성격으로 집중되어 주제화되는 특성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영채, 「사람다운 삶에 대한 갈망」, 『아저씨의 훈장(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문학동네』, 1999), p.468 참조.

의 과정을 아우르는 삶의 문제가 집중된 자의식이 숨겨져 요동치는 곳이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사가 드러나는 가운데 내면의 동요가 심한 인물의 성격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작용한 서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은 미세한 일상사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규범화된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에 의해 자기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내색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극심한 동요를 지닌 인물로 성격화된다. 인물의 내면적 자아의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다양한 일상사에 드리워진 억압의 실상과 역사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기억'의 방법으로 재구성하려는 박완서 소설의 의미는 '내면'을 통한 성격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박완서 소설에서 '내면'적 자아를 통한 성격화는 인물의 내면을 외면과는 다른 인물의 '이면'으로 여기는 서술자의 인식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내면을 통한 성격화는 삶의 '이면(裏面)'을 의식하는 서술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박완서 소설의 중요한 서술특성인 치사한 속내를 파고드는 심리묘사나 양면의 시각을 강조하는 세태묘사 등은 인물의 억압된 자아를 '내면'적 자아의 면모로 형상화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로서 '내면'의 의미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 서술방식의 연구로 이어진다.

평단에서 받은 관심과 작품의 양에 비해 박완서 소설 전반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여성작가이면서 대중작가로 불렸던 박완서의 개인적 이력은 단점으로 작용하여, 작품활동 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평론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평가<sup>3)</sup>들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한지 못한다. 특히 1980년대에는 소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팽배하던 문단 분위기로

3) 1970년대의 평론들은 박완서의 소설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종호, 「고당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 비평』(1977, 가을),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1977, 겨울) 참조.

인하여 더욱 비판받는 작가가 되기도 한다.<sup>4)</sup>

박완서 문학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다. 그러나 작품 연구는 주로 억척모성의 형상이나 전쟁체험의 의미 등 주제비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형식이나 서술방식,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황도경의 논문 몇 편에서 언급된 정도이다. 제도적 금기나 규범의 허위성으로 인해 진정한 말들이 억압되어 **말하고자** 하는 욕망은 마음 속에만 담아놓는 “속말”<sup>5)</sup>을 형성한다는 말의 의미와 연관된 서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서사분석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상황과 어휘**들을 사용하던 서두의 **문장들**”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들의 관계를 통해 “**반전과 깨달음의 구조**”<sup>6)</sup>를 갖게 된다는 문체와 서사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역시, 박완서 **문학의** 묘미가 “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를 포착해내는 섬세한 시각과 이를 풀어가는 힘”임을 인식한 것으로 서술성을 중요시 한 연구이다. 그러나 황도경의 연구는 박완서 소설을 “**생명의식**”으로 단일하게 해석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과를 단순화시킨다.

“속말”의 의미나 반전의 구조, 미묘한 심리를 포착하는 수다스런 서술방식 등, 중요하게 분석해낸 서술특성은 내면적 자아의 자기탐색과 연관됨으로써 현실비판의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서술방식이나 문체의 특성은 박완서 소설의 **창작동기**인 은폐되어 있는 역사를 복원해내려는 의지와 연관됨으로써 박완서 문학의 특성으로 해명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이나 구성적 특성은 삶(역사)에서 은폐된 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이면’으로 이해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계기, 혹은 역사적 실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작가의식의 표현이다. 박완서

4) 1980년대 박완서 소설에 대한 1980년대의 평가는 조혜정의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작가세계』, 1991, 봄)를 참조.

5) 황도경, 「생존의 말, 생명의 몸」, 『우리시대의 여성작가』(문학과지성사, 1999)

6)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실천문학』(2000.가을)

소설이 자기미화의 위선성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엄의식이나 인도주의적 태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자기미화의 가능성까지도 차단하려는 냉정한 작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랄한 사회비판”이나 “정직한 소시민의 자기성찰”<sup>8)</sup>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도 자기자신을 미화하려는 욕망까지도 날날이 폭로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완서가 스스로 말하는 ‘문밖의식’<sup>9)</sup>은 화해의 정서에 동화되기보다 그런 정서의 허위성을 성찰하는 경계선에 있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 ‘문밖의식’과 그로 인한 서술특성은 작품에 사회비판적인 발언이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미학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세계를 모성의 생명의식이나 인간 존엄의식이라는 주제로 본다면 진지한

---

7) 이런 태도는 지배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과까지도 비판하는 것이 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데올로기 효과에 의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하나의 규범이 됨으로써 이데올로기 비판조차 가능하지 않을 때 지배 이데올로기는 내면화되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 비판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이나 감정에 호소하고 이데올로기 대신 어떤 다른 교조적 원리——예컨대 인도주의, 평등주의, 분배정의 등——을 내세우는 도덕적, 감정적, 교조적 비판은 과학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데올로기 비판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규범의식의 허위성을 비판하는 박완서 소설은 이런 이데올로기 효과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비판과 그 효과까지도 비판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박완서 소설을 모성의 생명의식으로 읽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유평무, 「이데올로기 분석과 비판의 방법론」, 산업사회 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 이데올로기』(녹두, 1991) p.36 참조.

8)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 비평』(1979. 봄), p.297 참조.

9) 박완서는 ‘문밖의식’을 “좀 비껴난 자리에선 될 더 많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계선에서 가지는 객관적 태도를 자신의 창작태도로 말할 바 있다. (박완서, 『서울내기 시골뜨기2』, 『서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p.209) 이선미, 『어머니의 역사와 ‘늙은 엄마’의 진실』, 『현역중진작가연구 I』(국학자료원, 1997), pp.93~95 참조.

자기탐색에 몰두하는 내면적 자아로 인해 가능한 현실비판의 긴장감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술방식의 분석 못지않게 서술방식을 추동하는 소설창작의 동기로서 작가의 현실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sup>10)</sup> 은폐된 ‘이면’의 ‘사실’ 들을 기억해서 복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식이 전제될 때 서술방식의 특성이 자아내는 현실비판의식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방식, 곧 서술방식의 연구는 작가가 소설을 쓰게된 역사적 계기를 문제삼는 ‘기억’의 방법론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 2. 소설방법론으로서 ‘기억’과 ‘복원’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방식으로서 서술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소설창작의 동기가 함축되어 있는 ‘기억’과 ‘복원’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9년에 발표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 나오는 ‘복원’은 박완서의 ‘기억’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탁월하다고까지 생각한 건 소재보다는 그의 특출한 기술방법이었다.

10)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의 창작방법을 기억에 의한 글쓰기라 하면서 “역사의식과 별개의식의 한 가운데”에 박완서 소설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박완서의 소설이 역사적 계기에 의해 은폐되거나 억압된 기억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억을 회상형식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기억’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한다. 반면, 권명아는 기억의 소설방법론이 바로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기억’의 방법론이 갖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정치적 의미를 주목한 바 있다. 김윤식, 「박완서론 - 기억과 묘사」, 『작가와와 대화』(문학동네, 1996), 권명아, 「박완서 -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1998, 겨울) pp.390~391 참조.

그는 마치 깨진 그릇의 파편을 주워 모아 원형을 재현하듯이 우직하고도 **꼼꼼하게** 한 지난 시대에 어떤 외진 고장에서 있었던 부정의 **추악상**을 본디 모양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그 드러냄이 어찌나 선명하고 여실한지 어떤 변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뛰어넘어 한 추악한 시대의 전형을 보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그건 문장력 같은 것하곤 달랐다. 그런 걸 타고났거나 같고 닳은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게 되레 그 수기의 미덕이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부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 차지한 몫 뿐 아니라 그 자신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분담한** 몫까지를 동정도 과장도 없이 정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혼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만큼 하고 태산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하고도 달랐다.

그가 수기의 제목을 「복원」이라고 붙인 건 참으로 적절했다. 깨진 간장종지 하나를 복원시키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파편들을 잃지도 보태지도 말고 고스란히 주워 모아야 하듯이 섬세한 부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제자리를 찾아 맞춘 그의 기억력은 **감탄할** 만했다. 십수년의 세월과 그의 연령으로 미루어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권력과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찰떡같이 맞물리면서 부정을 모의하게 된 경우뿐 아니라,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이 여실하면서도 그 **꼼꼼한** 기록성 때문에 그 동안도 그가 깨어 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야말로 그 수기의 마지막 진가였다.<sup>11)</sup>

인용문은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작가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소설의 의미를 대변하는 듯하다. 작품의 주인공인 소설가가 “복원”이라는 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재 보다도 그의 **특출한** 기술방법” 때문이다. 부정의 **추악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권력과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11)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1989. 여름), pp.154~155.



찰떡같이 맞물리”는 경위하다가 “부정 자체가 지닌 인력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자마자 정신없이 빨려들게 되는 모습”까지도 여실히 드러낸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흔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 만큼 하고 태산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와도 구별되는 점이라 여긴다. 이 소설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작가가 주목한 “복원”이라는 수기는 발표되지 못하고 만다. 현실은 이런 자기고발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기를 쓴 자가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상실의 체험은 여전히 억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즉 ‘사실’이 ‘사실’로서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은폐되고 미화되는 현실은 여전한 것이다. “복원”이라는 수기는 발표되지 못하고 만다. 뒤이어지는 주인공의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는 ‘사실’이 은폐되고 미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강조한다**. 따라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원’은 바로 박완서 문학세계를 가능케한 ‘기억’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그로 인한 전쟁, 분단은 작가 박완서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남아선호 사상’, ‘정조관념’ 등의 규범으로 내면화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 온 체험이나 **중산층** 주부로서 내면화해야 했던 가족 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의 이상은 박완서의 작품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근본적인 것들이다. 자잘한 일상사에게까지 내면화되도록 강요되었던 ‘근대화’의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들은 자기상실의 체험을 형성한 것이다. 예컨대 적군으로 받아들여졌던 **오빠의 죽음**을 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전쟁은 원체험이 되며, 살아남은 딸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은 더 **강렬한** 것으로 각인된다. 등단작인 『나목』은 분단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복합적인 작용이 빚어내는 억압의 체험이 드러난 대표작이다.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내색할 수 없었던 억압된 자아의 실상은 전쟁기의 체험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에서 반복된다.

이처럼 작가가 과거의 체험을 소설화하는 것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규범, 허위의식으로 인한 자기상실의 체험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억의 글쓰기”라고 불리워지는 박완서 소설은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문제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박완서에게 기억은 ‘사실’이 은폐되는 현실의 부정성을 비판하고 ‘사실’을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며, 이 기억은 소설이다.<sup>12)</sup> 따라서 기억은 그 자체로 ‘사실’의 복원이면서,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는 작가 나름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sup>13)</sup> 이로 인해 박완서 소설에서 ‘기억’은 모

12) 이는 소설 속 서술자의 말을 통해서, 또는 작가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다. 박완서, 「부처님 근처」 『현대문학』(1973.7), 「나에게 소설이란 무엇인가」, 『박완서 분과앨범』(웅진출판, 1992) 참조.

13) 박완서의 문학세계와 관련된 ‘기억’의 의미는 공적 역사에 의해 구성된 ‘사실’이나 ‘역사적 진실’조차 하나의 관점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도 통한다. 이 견해는 ‘역사적 기록물’ 역시 하나의 관점에 의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역사소설과 역사적 진실의 관계가 단순히 ‘허구’와 ‘사실’를 넘어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의 제시로 볼 수 있듯이(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역사적 기록물로 공식화되어 있는 ‘공적 역사’가 ‘나름대로’ ‘사실’을 구성한 하나의 관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쟁기록이나 역사서술은 ‘사실’을 해석하는 많은 관점에 의해 다양하게 ‘사실’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이 공적 역사 기록물들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배권력의 권력화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공적 기록은 지배권력의 관점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박완서의 전쟁기 체험의 소설화는 이런 공적 역사의 비사실성을 일깨우려는 또 다른 ‘사실’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통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전쟁을 기록하는 공적 역사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일깨우고 또 다른 ‘사실’을 통해 진실에 이르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는 독일과 일본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후지타 쇼오조요,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비평사, 1998, 타나카 히로시, 『기억과 망각』, 삼인, 20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참조)

든 것을 파편화시키는 시간의 파괴력에 맞서는 ‘기억’이나 ‘회상’<sup>14)</sup>과는 다른 의미가 된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의 서술자인 작가가 주목한 ‘복원’의 의미는 바로 자기상실의 체험마저도 은폐되고 미화되어 여전히 억압된 과거의 ‘사실’을 ‘기억’ 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미적 전략인 것이다. 이때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은폐와 미화의 작업에 정신없이 빨려들어가는 자기자신의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복원하는 치열한 자기비판과 반성적 자기인식이다. ‘내면’을 파고드는 인물 스스로의 시선이나 서술자의 시선은 바로 자기반성적 인식에서 나온다. 은폐되고 미화된 ‘내면’을 속속들이 파헤쳐 인물의 성격이 구성되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속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서술방식을 통해 치열한 자기반성이 유도된다. 인물의 내면을 겹겹이 헤집어 치사한 속내까지도 보고마는 인물묘사나 자기를 상실한 것으로서 과거를 기억하려다가 과거 자체를 ‘사실’로서 기억할 수 없도록 하는 현실의 실상을 파악해내고 그 현실을 문제시하는 결말에 이르는 구성 역시 ‘기억’의 방법론 때문인 것이다.

이는 박완서 소설의 문체도 규정한다. 이야기 속의 인물의 삶이나 감정에 동화될 만하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산만하게 관심을 흐트리뜨리는 수다스런 서술자나 끼여들기의 서술방식은<sup>15)</sup> 자기 미화나 자기 연민과 같은 감상적 태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이것 역시 인물의 자기연민에 동화되

14) 김윤식은 박완서 소설의 방법론으로서 ‘기억’을 루카치나 벤야민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김윤식, 앞의 글, 루카치, 『소설의 이론』(심철당, 1985) 참조.

15) 박완서 소설의 수다스런 문체나 서술방식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작품의 결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 사실, 박완서 소설은 여러 삽화들이 별 서사적 연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거나 산만하게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결함이기보다 독자가 인물의 내면 정서에 동화되지 않고 인물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서술방식에 대해서는 김윤식, 「박완서론 - 망설임 없는 의식」,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서레헌, 1979), 김경수, 「여성경험의 소설화와 삽화형식」, 『현대문학』(1991. 겨울), 박혜경, 「저문 날의 삽화, 혹은 소시민적 풍속도」, 『저문 날의 삽화』(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어 허위의식으로 현실을 미화하고 허위적 현실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서술방식이다. 따라서 “기술방법”이라고 한 “복원”이라는 수기의 서술방식은 박완서 소설의 방법론적 토대로서의 ‘기억’이 회상형식으로 포괄될 수 없는 박완서만의 특성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3. ‘이면(裏面)지향적’ 사유와 ‘내면’적 자아의 형상화

작가가 과거의 경험이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기억으로 억압의 체험을 복원하려 하듯이, 작품 속 인물들 역시 대사나 행동으로 외화되지 못하고 내면에만 담아두어야 하는 억압된 자아의 면모를 통해 성격화됨으로써 자아의 진상(真相)을 드러낸다. 즉 억압된 자아를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을 통해 복원함으로써 자아를 복원한다. 이 ‘내면’이 바로 역사적 계기에 의해 은폐되거나 억압된 자아의 면모를 간직한 유일한 흔적이다. 그래서 억압된 내면적 자아의 면모는 사회역사적 경험이 집약된 최종지점이 된다. 박완서 소설의 인물 성격화에서 ‘내면’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묘사는 인물 성격화에 결정적 요소가 되며 내면묘사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역사적 억압의 계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내면’은 인물의 성격화에 중심범주가 되고, ‘내면적 자아’를 통한 성격화방식을 통해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이 사회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이 있거나 지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 못함에도 작품이 “신랄한 사회비판”의 주제를 형성하게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현대소설에서 내면묘사는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나’의 자기인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려 하는 근대적 주체관의 형성 이래로 자아와 세계의 대립, 내면과 외면의 대립, 영혼과 행위의 대립은 개인과 환경세계의 이원성에 근거한 소설 장르의 가장 기본적인 정황으로 이해된다.<sup>16)</sup> 이때 ‘내

면'은 소설의 중심 범주가 되는 것이다. 특히 루카치는 이 이원성에 근거하여 소설의 유형학을 시도한 바 있다.<sup>17)</sup> 또 현대소설에서 내면성은 “영혼성의 체험”이 가능한 유일한 “영적 실체”<sup>18)</sup>로 중요시되며, 현실에 대한 내면성의 우세를 내세움으로써 소설에서 중요한 범주가 된다.

소설의 ‘내면성’ 범주, 즉 ‘내면지향’과 ‘내면의 의식적 우월성’은 우리 소설사에서도 문제시된 바 있다. 1930년대 임화의 「세태소설론」에서 애기된 “세태”와 “내성(內省)”의 대립은 본격소설이 가능하지 않은 시물화된 삶의 상황을 반영한 소설의 유형화라 할 수 있다.<sup>19)</sup> 이때, 세태와 내성의 구분 역시 자아와 세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완서 소설의 서사적 특성을 해명하기 위한 중심 범주로서 ‘내면’은 이처럼 환멸의 현실을 총체화하고 비판하는 ‘우월한 의식’인 ‘내면의식’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내면의식’은 인물이 스스로를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반성적 인식에 해당한다. 반면에 박완서 소설의 ‘내면’은 인물의 자기인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인물이 자기의 것인지 아니지 의심하는 내면의 생각이나 무의식적 감각 등을 포괄한다. 내면의 자기인식을 포함하여, 내색하지 못하고 내면에만 담아두는 생각들이나 인물 스스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느낌이나 심리현상을 통틀어 성격화의 중심이 되는 ‘내면’이라 할 수 있다. 또 무의식에 해당하는 꿈이나 환영, 감각적 체험 등도 ‘내면’이 된다. 이 ‘내면’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자아의 면모와는 다른 면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물의 ‘이면’으로서의 ‘내면’이라 할 수 있으며, ‘내면의식’과 구별되는 것이다. 인물의 과거 경험이 억압되고 은폐된 채로 유지되는 현실을 문제시할 수

16) 자아와 세계의 이원성을 중심으로 서구 장르론을 소개하고 장르의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는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문학과학지성사, 1990)을 참조할 수 있다.

17) 루카치, 앞의 책 참조.

18) 워르겐 슈람케, 『현대소설의 이론』(문예출판사, 1995), pp.102~111 참조.

19) 임화, 「세태소설론」, 『문학의 논리』(학예사, 1940), pp.349~354 참조.

있는 유일한 흔적으로서 ‘내면’인 것이다. ‘내면’은 외화되지 못한 자아의 면모를 ‘이면’으로 전제하고 자아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사유와 연관된다.

억압되어 드러나지 못하는 인물의 ‘이면’으로서의 ‘내면’을 들추어내는 서술방식은 내면을 통한 인물 형상화 외에 세대풍속 묘사나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데에도 일관성 있게 관찰된다.

그 여자의 앞 모습과 뒷모습은 판이었다. 군살이 붙지 않은 우아하고도 간결한 선과 자신있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하여 뒤에서 본 그 여자는 스무살을 갓 넘어서 것처럼 싱싱해 보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앞모습엔 분명하고도 멀지 않은 노추(老醜)의 예감 같은 게 서려 있었다. 세필화(細筆畵)처럼 공들인 화장 밑엔 물빨래해서 다림질한 비단결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주름살이 은폐되어 있었고, 목의 주름살은 솟제 적나라했다.

판이한 건 그 여자의 앞과 뒤 뿐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큰 눈은 뭉가를 주장하고 나설 것처럼 강경했지만 그 여자의 입술은 시들은 꽃잎처럼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았다. 타고난 눈썹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그린 눈썹은 간드러지게 요염했지만 턱은 완강했다. 발목은 날씬하고 발은 유리구두라도 신겨주고싶게 앙증맞고 귀여웠지만 손은 거칠고 튼튼하고 영똥한 곳에 웅이처럼 질긴 못까지 박혀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상스럽도록 투박한 손가락이 간간이 자신의 걸 좋은 머리속 깊숙이 집어넣었다가 빗질해 내리는 게 마치 타인의 손처럼 무해해 보였다. 그 여자는 버릇처럼 무심히 그러나 그지없이 세련된 동작으로 곧잘 그렇게 했다.

그 여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멋부리고 있었지만 동냥자루처럼 더럽고 허술한 백을 메고도 천연덕스러웠다. 백이 잘못돼 있지 않을 땐 구두라도 잘못돼 있었고 구두가 잘못돼 있지 않으면 벨트나 머플러라도 잘못돼 있었다. 잘못돼도 심하게 잘못돼 있었다. 그 여자의 멋부리는 솜씨에 대해 샘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여자의 이런 실수까지를 멋을 위한 기교라고 짐작하

고, 기교치곤 유치하고 실수한 기교라고 비웃었지만 그건 오해였다. 요컨대 그건 그냥 그 여자의 순전한 실수일 뿐이었다. 요컨대 그 여자는 완벽한 멋쟁이는 못됐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남들에게 친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 여자속의 이런 판이함은 서로 타협하거나 조화될 김새없이 각각 두드러져서 그 여자의 인상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했다. 특히 남의 인상에서 즉각적이고도 단일한 해답—저 여자가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젊었나 늙었나? 잘살까 못살까?—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을 시침 딱 떼고 꿀탕먹이기에 알맞았다.<sup>20)</sup>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맨 처음 부분이다. 작품의 도입부를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태도에도 ‘이면’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임에도 객관적인 묘사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실상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서술자의 판단이 강하게 드러난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판이했다**”로 시작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확연하다.

서술자의 시점은 독자의 내면을 향해 있다. 일반적으로 3인칭 서술시점이 그러하듯이, 이 서술자도 “그 여자”의 삶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여자”의 실상을 서술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여자”의 실상을 서술하는 가운데 그 여자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대상인 독자를 의식하면서 독자가 “그 여자”의 실상을 파악해가는 방법을 서술한다. 시점은 독자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서술자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데, 이 ‘판단’은 인물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독자가 인물의 외양을 통해 인물을 파악해가는 ‘의식’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서술에서 드러나는 서술자의 판단은 독자를 설득하려는 관점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독자

20)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동아일보, 1979. 10. 2).

의 내면의 허위의식을 일깨우려는 의도 때문이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 여자의 걸 모양을 통해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을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한다. 이때 인물의 외양묘사에는 단순히 “그 여자”의 객관적인 외양묘사에 국한되지 않고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독자의 ‘의식’을 문제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단순한 외양묘사에도 굳터더기 같은 서술 속에 삶을 인식하는 독자의 ‘의식’을 문제시하려는 서술자의 태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양묘사에는 작품을 관통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조차 이미 ‘상식적 통념’<sup>21)</sup>에 의해 왜곡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우리 ‘의식’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서술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의식’에서 내면화된 허위의식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서술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여자”의 뒷모습조차도 그 여자의 세련미에서 나온 의도적인 실수로 생각하게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함으로써 “그 여자”의 실상보다는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관심을 갖는다. 나아가 서술자는 “그 여자”의 외양을 묘사하는 가운데 독자의 시점을 서술자의 시점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서술자가 비판하는 ‘고정관념’이 자기자신의 것인 듯 생각하게 한다. 즉 서술자의 외양묘사는 독자들 스스로 자기자신을 탐색하고 공감하게 하는 설득의 서술태도를 지닌다. 이로써 이 서술자가 “그 여자”의 외양을 묘사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그 여자”의 실상을 파악해가는 우리 ‘의식’의 허위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서술자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21) 박완서 소설에서 이미 사람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 인식의 틀이나 사고패턴으로서 ‘상식적인 통념’에 대한 비유나 설명이 많이 나온다. “상식의 논리”, “남의 이목”, “이웃집 여편네의 수다” 등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미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나 허구적 관념, 도덕관, 편견, 고정관념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 여자”의 힘겨운 삶에 연민을 느낌으로써 정서적으로 공감되기보다는 “그 여자”의 삶을 힘겹게 몰아가는 무수한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관념들이 곧 자기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은 이 **공감**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다. 자기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이런 연민에 독자가 공감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서술 태도는 인물 성격화에서 알 수 있는 ‘내면’ 적 자아의 면모를 ‘이면’으로 전제해야 자아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인식과 통한다. 인물을 성격화하기 위해 ‘내면’을 인물의 ‘이면’으로 인식하듯이, 외양묘사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은 그 의식에 개입된 여러 규범의식에 의해 ‘사실’이나 사물의 ‘실체’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삶을 인식하는 우리 ‘의식’에 개입되는 내면화된 ‘허위의식’<sup>22)</sup>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런 서술태도는 박완서 소설의 풍자적 서술방식이나 수다스런 서술자 등 의식 깊숙한 곳을 파헤쳐들어가는 집요한 서술태도와 연관되며, ‘상식적 통념’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내면화된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서술태도와 연관된다.

이렇듯 ‘내면’을 통한 성격화나 내면화된 허위의식을 문제삼는 서술태도는 모두 은폐된 삶의 ‘이면’을 전제함으로써만 ‘진상’ 혹은 ‘사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면지향적’ 사유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면지향적’ 사

22) 이 허위의식은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포괄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려면 그것에 종속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와 끊임없이 타협해야 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진정한 요구와 필요와 욕망에 대해 의미있게 작용해야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독백적’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대화적’이 되어야 한다.”(테리 이글튼,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1993, pp.59~63 참조)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과정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허위의식은 지배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이 내면화과정에 개입되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의식의 작동 방식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 과정이나 효과라는 개념에 포괄될 수 있다. 유평무, 앞의 글, pp.31~35 참조.

유가 삶의 다원화나 상대주의적 관점과 같은 것은 아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박완서 소설에서 '이면'은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역사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면'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실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고, 이 상실의 체험이 여전히 억압되어 은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아내고 비판하는 미적 범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통해 인물의 '이면'이나 삶의 '이면'이 들추어진다는 것은 개별적 삶에 드리워진 사회·역사적 요인이나 억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면'을 전제하고 그것을 '사실'로 복원하려는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은 억압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은폐하려는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부정하는 또 다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전후 한국사회의 위선적 삶의 방식과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자기발견의 서사<sup>23)</sup>라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인물이 자아의 면모를 제대로 내색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오해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중적 면모로 성격화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의 내면에서는 인물의 전면모가 드러나게 되며, 이 '내면'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자아의 전면모가 외면화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내면의 심리를 통해서만 억압된 자아의 면모가 드러날 때, 자기를 상실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서사가 된다. 이 자아는 내면의 발견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내면의 발견을 통해 오히려 자아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자기부정'에

23) 자기발견의 서사는 교양소설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소설이 인물의 성장에 따른 정체성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박완서 소설의 자기발견의 서사적 특성은 자기를 상실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 교양소설에 대해서는 M.M.Bakhtin(translated by Vern W. McGee),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Realism」,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86) pp.23~24 참조.

이른다. 그렇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내면화된 허위의식으로 인해 자기를 상실해나가는 과정은 규범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내면’ 적 자아를 통해 상실된 자기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면지향적’ 사유에 의한 서술특성은 자기가 부정되는 고립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는 역설적 서사가 된다.

일본의 침략과 함께 이루어진 근대적인 삶으로의 변화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공고화된 이데올로기적 통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등을 겪은 한국의 근현대사는 통제와 규율에 의한 획일적인 주체성을 규범적 자아로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처럼 제도적 금기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극심한 사회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는 박완서 소설의 서사적 특성은 근대적 주체화의 한 양상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 4. 내면갈등과 서술의 <역설성>

##### ——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서 전쟁 이야기는 여러번 반복된다. 이야기 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식으로 변주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쟁은 지배 이데올로기나 규범의식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직접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즉 개개인의 전쟁체험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의 고조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보다 은폐되어 있던 삶의 진상(真相)을 발견하게 되는 극적 계기로 서 역할한다. 인물의 은폐된 삶이 전면화됨으로써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재난으로서 전쟁체험이 다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자체는 별달리 주목되지 않으며, 그것이 제공하는 극적 성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주인공들은 각각 전쟁기의 경험을 통

24)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녹두, 1991) 참조. 김진균 외 지음,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참조.

해 전면적인 삶의 변화를 겪는 인물들이다. 『나무』의 이경은 오빠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였음을 알게 되어 방황하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는 어린 동생 오목이에게 먹을 것을 뺏기는 게 싫어서 동생을 버리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전쟁에서 추상적인 공포나 불안을 체험한다기보다 직접적인 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인물들에게 전쟁은 극적 사건인 것이다.<sup>25)</sup>

또한 내면의 걱정은 인물 성격화와 관련해서 극적인 것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흔히 극에서 인물이 지닌 내면의 걱정은 행위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으로서 완결되는 것이다.<sup>26)</sup> 이때, 갈등은 내면적 걱정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행위(action)와 행위의 대립을 의미하며, 극에서 성격과 성격의 대립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내면의 걱정은 행동화됨으로써 인물의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극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물 성격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내면의 걱정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외화시킴으로써 갈등관계에 처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내면의 걱정은 행동으로 외화되지 못하고 내면에만 머무름으로써 내면갈등을 형성할 뿐이다. 이렇듯 극적인 것은 내면의 걱정을 유도함으로써 갈등의 계기가 되지만 행동화되지 못하고 내면갈등으로 머물게 됨으로써 외면과 내면이 다른 이중적 성격의 계기로 그친다. 다시 말해, 박완서 소설에서 극적인 것은 인물 성격화에 결정적 요인이지만, 극적인 것이 인물의 행동에 계기가 되지

25) 여기서 '극적'이란 장르적 특성에서 파생되어 관용어로 쓰이는 '극적(dramatic)'인 것을 의미한다. '상황', '긴장', '구체', '제시' 등의 장면제시 등으로 극적 상황을 조성하여 인물의 내면에 은폐된 자아가 인물에게 의식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극적 장면의 제시, 극적 사건, 극적 상황, 극적 긴장 등이 인물 성격화의 계기가 된다. S.W.Dawson(천승걸 옮김), 『극과 극적 요소』(서울대출판부, 1981), pp.2~3 참조.

26) 구스타프 프라이탁(임수택·김광요 옮김), 『드라마의 기법-고전비극의 이념과 구조』(청록출판사, 1992), pp.25~26 참조.

는 못한다는 것이다. 극적인 것은 내면의 격정을 낳지만, 이를 내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내면과 외면이 다른 이중적 성격의 계기가 된다. 결국 박완서 소설에서 극적 요소는 인물이 극심한 내면갈등과 그로 인한 인물의 삶의 심각성을 고조시키는 계기인 것이다.

가족(어머니)은 절대적인 애정관계를 의미한다는 가족 관념이나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은 강간당한 경우라도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정조 관념,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 만은 지켜야 한다는 장자의식과 혈통주의, 언니는 무조건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착함의 이데올로기’ 등은 전쟁이라는 극한적 상황 속에서 허위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허위적인 것으로 발견된 이 관념들은 모두 인물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어서 인물에게 전면적인 삶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 즉 인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관념들이 허위적임을 알게되면서 자기상실을 체험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즉 인물이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알게되는 사실들은 인물이 전면적인 위기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극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극적 사건은 인물이 극심한 내면갈등을 겪게 할 뿐, 인물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인물은 자기 삶의 진상을 알게되는 극적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를 발견하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은폐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으로 성격화된다. ‘내면’ 적 자아의 면모로만 드러나는 내면갈등은 억압된 자아의 유일한 흔적이며, 인물의 개성적 면모가 집약된 것이다.

『나무』의 이경은 극적 사건이나 극적 장면을 통해 내면갈등이 극심한 인물로 성격화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경의 두 오빠는 전쟁 중에 폭격으로 죽는다. 이 후로 어머니는 살아보려는 의욕을 포기한 채 “죽음의 빛”을 띠며 살아가고, 이경은 이런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오빠의 죽음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를 경험한다. 아들을 중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던 어머니는 아들이 죽자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는 의욕없이 살아가며, 이런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이경은 어머니의 ‘가족’에 딸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이경의 막연한 공포는 바로 어머니의 가족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경은 전쟁으로 빚어진 비극성을 자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빠들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경의 자기인식의 계기로서 전쟁의 비극성은 그저 배경일 따름이며, 이경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오빠들이 죽는 극적인 장면이 이경이 자기 삶의 진상을 알아나가는 하나의 계기이듯이, 이어지는 극적인 장면들, 오빠들이 치던 기타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대결하는 장면, 일시적 충동으로 만난 미군 조오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고 뛰쳐나오는 장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밤 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리다 돌아가신 거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울부짖는 장면 등은 모두 극적인 것으로서 이경이 자기를 발견하는 동시에 은폐함으로써 내면 갈등을 겪는 계기가 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 역시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를 은폐해야 하는 내면갈등으로 성격화된다. 『나무』의 이경은 극적 장면을 계기로 내면갈등에 처하게 된다. 극적 요소는 인물의 내면갈등에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의 삶은 극적이지 않다. 인물은 극적인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내면의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물론 극적인 사건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지나간 사건으로 생각할 뿐이며, **중산층** 주부인 수지는 평범한 일상인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에 전쟁 통에 경험한 극적인 사건이 회상됨으로써 인물은 억압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은폐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극심한 내면갈등으로 성격화된다. 이 작품에서 극적인 것은 인물의 평온한 현재에 끼어들어 억압된 과거를 환기시켜 내면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는 전쟁 중의 기억을 극적인 것으로 환기할 때 억압된 자기를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은폐함으로써 내면갈등을 겪는 인물인 것이다.

수지는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머니로 인해 일곱 살의 나이로 다섯 살짜리 동생 오목이를 돌보아야 했다. 다섯 살의 오목이

는 전쟁 중의 가난과 허기로 인해 항상 언니인 수지의 먹을 것을 뺏고 갖은 생떼를 부렸다. 이럴 때마다 일곱 살 수지는 동생을 미워하며 동생이 없어 지기를 바라는 ‘어두운 마음’과 갈등하게 된다. 심지어는 이런 유혹을 “벽찰 만큼 격렬하고 매혹적인 기쁨”<sup>27)</sup>으로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일곱 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마음에 매혹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수지의 어린 아들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듯이 일곱 살이라는 나이는 내면의 욕망이 조율되지 않고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나이인 것이다. 그런데 수지는 자기 자식의 먹을 것을 오목이에게 빼앗기는 게 싫어서 수지를 착한언니로 부추기는 어른들의 이기심에 의해 이런 자연스러운 욕망을 죄로 받아들이고 그 욕망을 은폐하기 위해 더욱 착한 언니가 됨으로써 자기를 억압하고 위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수지가 내면에만 간직하고 있는 오목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억압된 욕망은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수지를 매혹시키고, 급기야 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이 더해지자 수지는 인파 속에서 일부러 오목이를 놓아버리게 된다. 오목이를 놓아버린 건지 놓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여기는 수지는 오목이를 잃고 울부짖으며 오목이를 찾아헤매고, 피난 길에 들어선 어른들은 어린 오목이를 찾기보다는 없어진 것이 오히려 낫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피난길을 떠난다. 어른들의 생각에 공모자를 얻었다고 생각한 수지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의식을 억압할 수 있게 되지만, 피난 길에 폭격을 맞아 죽은 어머니를 보며 가졌던 죄의식은 억압된 죄의식의 마지막 흔적처럼 유일한 기억이 된다.

이렇듯 수지는 죄의식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갈등을 일으킬 만한 자의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억압된 죄의식이 의식되는 순간,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낯설게 인식함으로써 억압된 자아를 의식하고 자기를 발견한다. 그러나 수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동생을 버리고 싶은 마음을 어찌지 못하고 실제로 동생을 버렸다는 상황은 수지가 억

27)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한국일보, 1982. 1. 12).

압된 자기(죄의식)를 발견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목』의 이경처럼 자의식이 강한 성격과는 다른 성격이 되게 하며, 내면갈등의 계기로서 극적인 것 역시 서술자의 증개에 의해서 조성된다.

수지는 대개의 경우 죄의식을 억압하고 모르는 척 살아가며, 서술자에 의해 억압된 죄의식이 의식되는 순간 극도로 **동요**하는 분열적인 면모를 보인다. 수지는 이 내면의 동요로 인해 죄의식이 환기될 때는 극심한 내면갈등으로 자의식이 강한 인물로 성격화되지만, 그런 자의식조차 억압하려 하기 때문에 내면갈등은 지속적이지 않다. 수지는 고아원을 찾아 다니는 자선행위를 한낱 자기미화의 계기로 삼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가난한 애인 인재를 외면하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는 등, 위선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수지의 죄의식은 스스로 억압한 것이어서 수지의 내면갈등은 전지적 화자의 심리분석이 없이는 총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 수지의 과거는 스스로에 의해서는 기억되지 않도록 억압된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에 의해 극적인 사건으로 증개되어서 수지에게 자각되는 서술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수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 부득이 오목이를 일부러 놓았는지 북새통에 놓쳤는지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이더라도 엄마의 참사를 보고 천벌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은 그녀의 의식에 찍힌 죽도록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 나이에 그토록 **말뚱말뚱한** 의식으로 그런 참사를 직시하고 천벌로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천벌 받을 짓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고로 수지는 오목이를 놓친게 아니라 놓은 거였고, 어린 마음에 선악의 의식없이 놓은 게 아니라 **충분한** 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짓이었다. 그건 비록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변명할 여지없이 확실한 죄악이었다. 수지가 자신의 일곱 살을 꼭꼭 움켜쥐고 그 누구에게도 펴보이지 않으려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한국일보, 1982. 1. 19)



이것은 순전히 화자의 목소리로만 서술된 것이다. 죄의식은 수지에 의해 철저히 억압된 것이어서 수지 스스로 분석해내지 못한다. 화자는 이 기억이 수지 스스로에 의해 억압되어 분명하게 해명할 수 없는 것임을 역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에게 죄의식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일깨운다. 일곱살 어린아이가 겪은 전쟁 통의 극적인 사건은 이렇게 전지적인 화자의 심리분석에 의해 평온한 중산층 주부의 일상에 극적인 계기가 되어 억압된 자아를 복원해낸다. 이로 인해 수지는 억압된 자기를 발견하지만 그 죄의식을 억압하고서만 단란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은폐할 수밖에 없다.

수지의 죄는 동생을 버린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수지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지 스스로에게나 사람들에게 수지는 도덕적으로 단죄되는 것이다. 또한 수지는 죄의식을 스스로 억압하고 분열적인 면모를 갖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분석력이 탁월한 전지적 화자에 의해 되살려진 극적 장면들은 수지의 죄가 수지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이 데올로기적 맥락에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극적 장면으로 떠올려지는 과거의 회상은 수지 개인의 죄로 인식되어 당사자에 의해 억압된 죄의 실체가 서술자에 의해 분석되고 해명될 수 있게 하며, 모든 문제를 수지 개인의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수지의 내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회상은 이런 수지의 내면 뿐만 아니라 수지의 죄의 실체를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서술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이 회상된 장면들은 수지의 죄의식의 실체라 할 수 있는 허구적 도덕관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듯이, 수지의 죄의식은 바로 자기자식의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수지를 착한 언니로 부추긴 어른들의 이기심이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적 상황에서 딸은 버려져도 어쩔 수 없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 때문에 조장된 죄의식이다. 죄의식은 수지가 저지른 일의 도덕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더 깊숙히 파

고들어가면 수지를 죄로 몰아간 상황에 가족 이기주의를 미화하려는 허구적 도덕관념이나 규범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지가 처한 상황의 중층성은 수지 스스로 죄의식을 억압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수지의 내면갈등도 일시적이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점은 『나목』의 이경과 비교되는 점으로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의 성격화에는 수지의 억압된 죄의식을 해명해내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인물들은 전쟁의 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억압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은폐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으로 성격화된다. 인물들은 극적 계기로 알게된 자기의 진상보다도 그것을 내색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으로 인하여 더 극심한 갈등에 처하는 것이다. 이 극심한 내면갈등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은폐되고 미화된 역사가 부정되는 유일한 흔적이 되며, 이 내면갈등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능한 자기인식의 한 양상이 드러난다. 인물은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폐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을 겪게 되며, 이 내면갈등은 외면으로는 알 수 없는 인물의 진상, 혹은 정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갈등이 심할수록 인물의 자의식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내면과 다른 외면으로 인해 인물의 이중성은 더욱 고조된다. 이렇듯 내색하지 못하고 자기발견을 은폐함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에 처하게 되는 성격화는 역설적으로 인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된다. 외면의 평온함과 달리 극심한 내면갈등을 지닌 이중적 인물로 삶의 심각성을 고조시키는 성격화는 서술의 〈역설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 5. 자기발견/은폐의 역설과 고아의식

전쟁으로 두 오빠를 잃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 '나'를 인식하던 이경은

전쟁을 겪고 오빠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상실한다. 여기서 ‘우리’의 상실은 곧 가족의 상실이다. 가족 상실을 통해 자기 상실을 드러내는 것은 전쟁을 다루는 많은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체험은 이 ‘우리’의 상실이지 ‘나’의 상실은 아니다. 그러나 『나목』의 이경은 오빠들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상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로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대신 ‘우리’ 안에 이미 ‘나’는 없었던 것을 발견한다. 전쟁으로 가족을 상실함으로써 갖게 된 이경의 자기인식은 바로 이 자기부정이다. 이경이 대면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힘겹게 마주하는 삶의 진상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듯 이경의 전쟁경험, 그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경험은 가족 상실의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전면적인 가족 해체의 경험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부정의 경험인 것이다. 그러나 이경이 가족(어머니)의 의미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과 상관없이 이경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는 어머니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의식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 위선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의 진실을 은폐하고 위장한 채 살아야 한다는 자기부정 의식을 형성하는 바, 소외되고 부정된 자로서 자기를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은폐해야 하는 자로서의 자기인식인 ‘고아의식’이다.

이 고아의식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해체라는 실상이 실제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의 의식 속에서 자기발견의 계기가 된 내면적 사건이듯이, 수지에게도 가족의 해체는 수지의 내면갈등으로만 알 수 있는 자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폐하게 된다. 동생 오목이를 전쟁 통해 버렸던 수지는 “오목이 고년 잘 없어졌지. 걸리기에 업고 가기에 반지 빠른 나이거든”이라고 말하는 외할머니의 속내를 헤아리며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공모자를 발견한다. 외할

머니의 말은 자신도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준 것이다. 즉 동생을 버린 죄의식과 함께 안도감은 수지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수지 자신도 동생과 같은 처지가 되게 하는 치명적인 사실을 환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지가 동생을 버렸다는 죄의식을 억압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죄의식은 곧 안도감이기도 해서, 이를 자각하는 것은 오목이와 똑같이 버려질 수 있는 딸로서의 자기 삶의 진상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수지의 억압은 한층 복잡한 내면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내면은 전지적 화자의 도움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딸들에 의해 가족 관념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이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딸들의 잠재된 소외성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8)</sup>

이처럼 이들의 자기발견은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적 상황에서 가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 딸들은 버려져도 상관없다는 가부장 의식에 연결된 가족관념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무』이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주제는 이 자기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와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수난의 근현대사에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의 자기인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획일적인 규범을 강요했던 60년대 이후의 '근대

28) 이런 고아의식은 수지와 오목이의 대비적 삶을 관통하는 공통의 자기인식이다. 오목이는 실제로 고아지만, 다른 고아들과 달리 자신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존의 근거로 삼고 사는 고아이다. 오목이가 “은표주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수지는 동생 오목이를 버렸지만, 그를 통해 자신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으로 버려지지 않은 삶을 산다. ‘단란한 가족’의 일원인 수지는 언제든지 ‘단란한 가족’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는 고아의식으로 살아가며, ‘단란한 가족’에서 배제된 오목이는 ‘단란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반대적인 상황은 실제로는 버려진 자들의 양면이며,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 고아의식은 자기를 인식하는 근본의식이라 할 수 있다.

화' 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자기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sup>29)</sup>

근대의 시작부터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 소설사에서 '고아의식'은 작가의 식이나 작품의 모티브로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근대 소설사의 출발로 삼고 있는 이광수를 비롯하여 단편소설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태준의 **문학세계**에서도 이 고아의식은 **문학세계**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작가의식으로 평가된다.<sup>30)</sup> 이들의 고아의식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의식과 연관되며, 이는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의 아들로서 가지는 민족의식을 매개한다. 따라서 이들의 고아의식은 자기상실과는 정반대의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를 잇는 적자로서, 민족의 명맥을 잇는 뿌리로서 자기를 확인하는 의식인 것이다. 이는 자신을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우월의식이 되고 있지, 소외된 자의 의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작가들의 아버지 부재의 고아체험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국권 상실이라는 식민지 **상황**을 매개로 하여 적자의식이나 선각자 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고아의식이 된다.

박완서 소설의 고아의식은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과 60·70년대의 '근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을 낳는다.<sup>31)</sup> 전후 문학사에서 아버지 부재의 모티브는 강한 어머니나 수난받는 어머니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sup>32)</sup> 아들들에게 아버지

29) 「카메라와 워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나 **중산층** 여성들을 작중인물로 내세우는 많은 소설들에서 소외된 자들의 의식은 고아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아의식이 서술특성과 관련하여 위선적 인물의 자기인식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박완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인물의 자기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한길사, 1986), 박헌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소명출판, 1999), pp.34~39 참조.

31)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지성사, 1986), pp.90~93 참조.

32) 임진영은 이런 '자기희생'적 인물이 우리 소설사의 한 계보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소설사의 '여성적 성격'으로 평가한다. 모든 시련을 견뎌내는 삶의 태도 속에서 나오는 '자기희생'적 인물의 '체념'적 아이러니를 영웅적 대결을 보

부재는 아버지를 살려내야 하는 장자들의 중압감과 어머니의 수난을 지켜 보는 자괴감을 형성하며,<sup>33)</sup> 딸들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수난받는 희생적 삶을 요구한다. 아버지없는 집안을 이끌기 위해 갖은 고난을 무릅쓰는 어머니나, 오빠들의 출세를 꿈꾸며 여공으로 술집 작부로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딸들의 형상은 많은 문학작품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sup>34)</sup> 박완서 소설의 고아의식은 바로 이들의 자기인식과 연관된다.

이경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서 비로소 가족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자기 상실을 깨닫는다. 가족은 ‘나’는 없는 ‘우리’ 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온전하게 유지될 때는 ‘우리’ 안에 ‘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안에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가부장 의식에 묶여있는 가족에 의해서 버려진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sup>35)</sup> 이를 고아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개념의 허구성이 비판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 역

---

이는 문제적 주인공과 대비시켜 우리 소설사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이는 우리 소설사에서 주를 이루는 여성 수난사와 연관된다. 그러나 내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자기인식으로 성격화되는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이 ‘체념’적 아이러니를 부정하는 서사가 된다. 고아의식은 이와 연관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박완서 소설은 우리 소설사에서 독특한 입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양상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157 참조.

33) 아버지 부재의 모티브는 전쟁체험 이전과 이후에 이를 받아들이는 아들들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작용한다. 전쟁 이전, 즉 식민지 시대의 작품들에서 아버지 부재의 모티브는 이광수나 이태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적자의식이나 계몽의식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고아의식이라 칭한다. 그러나 전쟁 이후의 작품들에서 아버지 부재의 모티브는 수난당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괴감이나, 가운을 일으켜야 한다는 중압감을 형성한다. 이로 볼 때, 전쟁 이후 문학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남성상이 억척스러운 여성들과 비교되어 왜소해 보이거나, 심지어 식민지의 계몽적이고 열정적인 남성상이 흔치 않은 점들은 아버지 부재의 모티브가 역사적 조건과 결합하여 남성적 이미지의 변화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민음사, 1991) pp.112~115 참조.

시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통해 가부장 의식에 묶여있는 가족에는 딸인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버려진 자로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내면적 자아의 내면갈등과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는 외면의 이중성이라는 역설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심각성은 바로 이 고아의식 속에 집약된다. 고아의식은 내면갈등을 통해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는 서술의 〈역설성〉에 의해 복원된 자기인식인 것이다.

## 6. 결론

박완서는 전쟁 체험을 비롯하여 분단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역할했던 근현대사를 폭넓게 펼쳐보이는 작가이다. 굴곡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하여 경험을 통해 증거될 수 있는 많은 '사실' 들이 은폐되고 억압되었다. 박완서 소설에서 소재로 삼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은 이 은폐와 억압의 정체를 복원하려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복원은 사실들이 은폐되는 현실의 이해관계까지도 의식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행위' 라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억' 과 '복원' 의 방법론은 은폐된 역사적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으로서 인물의 '내면' 을 '이면' 으로 인식하는 성격화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 살펴본 서술의 〈역설성〉은 '기억' 의 방법론으로 인한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 중 하나인 것이다. 전쟁기의 경험을 소재로 한 『나무』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인물의 내면갈등과 이중성은 이를 잘 보여준다.

35) 이 점에서 이경이 사랑한 옥희도의 고독감은 이경과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옥희도는 전쟁으로 인한 자기 상실의 체험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일상을 영위하는 예술가의 실존적 딜레마라는 점에서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항상 직면할 수 있는 고독감이기도 하여,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한 이경의 고독감과 상통하는 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경은 상실의 체험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한층 복잡한 것이어서, 옥희도의 상실감과는 다른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쟁이라는 극적 상황을 통해 허위적 ‘관념’에 의해 부정된 자기 삶의 실상을 발견하지만, 그 ‘관념’이 자기 삶의 근거이기도 하여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폐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극심한 내면갈등을 겪는다. 이 내면갈등은 내색하지 못하고 내면에서만 갈등을 겪는 인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과 삶의 진상(眞相)이 은폐되어 있는 내면적 자아의 성격화방식으로서 <역설성>은 바로 ‘기억’의 방법론으로 ‘억압된 역사적 사실’ 즉 ‘억압된 개인의 경험’이 복원되는 서술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내면갈등은 자기를 소외된 자, 즉 ‘타자’로 인식하는 자기인식으로서 고아의식이 됨으로써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게 된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규범의식에 의해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고아의식은 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었던 획일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는 자아의 서사라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의 서술특성은 이 자아의 서사와 관련됨으로써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narrative of Park Wan-seo's novel

Lee Sun-Mee

This thesis studies the novels of Park Wan-seo, focusing on the narrative method that construct the characters. Her works embody the true picture of lives of the ages after Korean War, based on her real experience. The real experience comes into the novel for her strong wish to recall. The narrative method,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related closely with her wish to represent the experiences.

She wants to 'recall' and novelize the experience because it is the experience of the oppression. The memory is itself the 'experience of the oppression', because the experience cannot be expressed openly. And it is resurrected by her novel through recollection.

The author's memory, which is the shade of the socio-historical oppression, is related with her unique method of figuring the characters. Most characters of her novel have private and confidential experience only confined in inner side, because of the outer conditions of oppressing, as the author herself write the novel because of the surroundings which disturb the immediate speaking of her experience. The method of writing to resurrect the oppressed experience yields the peculiar characters.

This character is <the disguised character>, which is a kind of dual personality, inner side and outer side. The heroines of 『The naked tree』 and 『That winter was mild』 realized the real state of the life, which is

denied the false idea of the family. By the way, the false idea is a basis of their life. They faced a crisis. It is that they must cover up the real state of their life although realizing. And not opening their real state, they have trouble in the inner side. This dual personality is paradoxically showing the serious life. This characterization is 〈Paradox of narrative〉. These characters have the consciousness of the orphan, which is thrown away. The historical meaning of Park-Wanseon's novel is in this point.